제1105회 저녁주회



윤동주 기념관 투어



캠퍼스 투어



언더우드家 기념관 투어


만찬

제1105회 주회 출석현황

회원수	출석수	Make-up	출석률
87	12	0	49.4%

- 집행부(2명) : 이두원, 고영섭
- 클럽관리위원회(2명) : 김종문, 송재은
- 멤버십위원회(3명) : 김상수, 김성일, 김한샘
- 로타리재단위원회(1명) : 조남준
- 봉사프로젝트위원회(1명) : 이상우
- 공공이미지위원회(3명) : 구재상, 이재찬, 최진욱

제1106회 주회 식순

- 일 시 2026년 8월 11일(화) 12시
- 장 소 서울클럽 2층 지리산룸

1. 개회선언 및 타종
2. 네가지 표준 제창
3. 로타리 노래 제창 (R-O-T-A-R-Y)
4. 생일축하
5. 성금동의
6. 연사소개 및 강연
   - 연사 : 박성수 세무법인 다솔 전략기획본부장
   - 연제 : “상식의 틀을 깨는 세금이야기”
7. 사찰보고
8. 공지사항
9. 폐회선언 및 타종

생일회원(8월)

1일 고정림, 2일 이성원, 9일 김명진, 25일 김정택

연사소개

박 성 수

- 세무법인 다솔 전략기획본부장
- 국세청 23년 근무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조사4국
- 역삼,삼성,서초세무서 등 근무
- 안진회계법인, 법무법인 태평양 자문

공지사항

1. 서울무악로타리클럽은 회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로타리의 가치를 구현한 점을 인정받아 2025-26 우수클럽으로 선정되어 2025-26년도 프란체스코 아레조 국제로타리 회장으로부터 “2025-26 우수 클럽 표창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2025-26 우수 클럽 표창장

2. 제1107회 저녁주회

- 주관 : 클럽관리위원회(부회장 권보은,위원장 정재규,부위원장 한상민)
- 일시 : 8월 25일(화) 18시
- 장소 : 미정

3. 국제로타리 재단이사장 제니퍼 존스와 함께하는 재단세미나

- 일시 : 9월 3일(목) 9시~16시
- 장소 :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컨벤션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세자로 288)
- 등록비 : 1인당 5만원(3650지구에서 50%, 클럽에서 50% 부담)
- 주관 : 존13 RRFC,RPIC
- 참가인원에 따라 버스대절 및 아침식사 준비 예정

제832호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Vol.32 No.2

CREATE LASTING IMPACT

Rotary

週報 毋岳

THE Seoul-Muak ROTARY CLUB BULLETIN

로타리의 목적 Object Of Rotary

로타리의 목적은 봉사의 이상을 모든 가치 있는 활동의 기초로 발전시키고 증진하는 것으로, 특히 다음을 북돋는 데 있다.

01 첫째, 사람 간의 교류를 봉사의 기회로서 넓히고 함양한다.

02 둘째, 사업과 직업에서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가치를 인식하며, 로타리안 개개인의 직업을 사회에 봉사할 소중한 기회로 삼는다.

03 셋째, 로타리안 각자의 개인 생활, 직업 활동 및 사회 생활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한다.

04 넷째, 봉사의 이상으로 맺어진 사업 및 직업인들의 범세계적인 우정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이해와 친선 그리고 평화를 증진한다.

네 가지 표준 The Four-Way Test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Of the things we think, say or do

01 진실한가?
Is it the TRUTH?

02 모두에게 공평한가?
Is it FAIR to all concerned?

03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Will it build GOODWILL and BETTER FRIENDSHIPS?

04 모두에게 유익한가?
Will it be BENEFICIAL to all concerned?

2026-27년도 첫주회 스케치


2026-27년도 첫주회

- 국제로타리 회장 올라잉카 하킴 바발롤라
- 클럽관리위원장 정재규
- 재 무 강성태
- 3650지구 총재 김진환
- 멤버십위원장 김유돈
- 총 무 고영섭
- 회 장 이두원
- 로타리재단위원장 유세현
- 부총무 유재연,서정수
- 클럽 트레이너(前 총재) 이순동,김종문
- 봉사프로젝트위원장 한용란
- 사 찰 강희주
- 차기회장 오기호
- 공공이미지위원장 문승헌
- 부사찰 이종수,박성근

국제로타리 3650지구 서울무악로타리클럽

- 창립 1995년 10월 27일 · R.I. 가입승인 1996년 1월 11일
- 창립회원 163명 · 주회 화요일 12시 서울클럽
- 클럽사무국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동문회관 4층

3650지구 7지역 7지역대표 : 김범준(서울한강)

서울무악로타리클럽 | 서울한강로타리클럽 | 서울장안로타리클럽 | 서울화산로타리클럽 | 서울호서로타리클럽
북서울로타리클럽 | 서울LINK로타리클럽 | 서울풍류로타리클럽 | 서울커리어로타리클럽 |
서울무악 아너스로타리위성클럽 | 서울무악 울타리로타리위성클럽 | 서울무악 주니어로타리위성클럽

■ TEL 02.393.0987 ■ FAX 02.393.0986 ■ E-mail smrc3650@hanmail.net ■ URL http://cafe.daum.net/muakrotary

제1104회 주회



이두원 회장 고영섭 총무

2026-27년도 서울무악로타리클럽(회장 이두원) 첫 주회가 지난 7월 21일(화) 낮 12시, 서울클럽 2층 지리산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주회에는 이두원 회장을 비롯한 회원 24명과 특별히 이경률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장, 이원섭 총동문회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고영섭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주회는 이두원 회장의 개회 선언 및 타종으로 시작되었으며, 오현정 회원의 네 가지 표준 낭독과 박성근 송리더의 선창으로 로타리 노래를 제창하며 본격적인 주회가 이어졌다. 이날 특별강연에서는 이경률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장을 초청하여 「제32대 총동문회 소개와 향후 운영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 회장은 총동문회의 비전과 주요 사업 계획을 소개하며, 동문 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모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추진 방향을 공유하였다. 참석한 회원들은 강연을 통해 총동문회의 미래 비전과 운영 계획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사찰보고에서는 강희주 사찰이 이날 총 119만 원의 성금이 모금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 이두원 회장의 폐회 선언 및 타종으로 2026-27년도 첫 주회인 제1104회 주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제32대 총동문회 소개와 향후 운영 방안


이경률 총동문회장

존경하는 서울무악로타리클럽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연세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제31대에 이어 제32대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장으로 다시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격려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2023년 6월, 제31대 총동문회가 첫발을 내디뎠을 때 우리의 가장 큰 숙제는 '연결의 회복'이었습니다. 직전 유경선 회장님 시절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모든 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그 어려운 시기에도 발전위원회가 약 800억원에 달하는 소중한 발전기금을 모아 학교에 전달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동문 간의 온기를 직접 나누는 대면 교류에 대한 갈증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에 제31대 총동문회는 "어떻게 하면 젊은 동문들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눈을 맞추고 교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첫번째 결실이 바로 '신촌 캠퍼스 교정 걷기 대회'였습니다. 2024년 제1회 대회 당시, 어린 자녀를 동반한 젊은 동문 부부를 비롯해 1,200여 명의 동문 가족이 모였습니다. 기획분과위원회에서 신촌 캠퍼스 내 16곳의 역사적 장소를 발굴하고 큐레이션을 준비해 약 5km, 2시간 코스의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완주 후 학생회관에서 함께 점심을 나누고 완주 메달과 추첨 선물을 전하며 온 가족이 즐기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올해 3회째를 맞이하며 참가자가 2,0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중학생 자녀가 아름답고 웅장한 교정을 둘러본 뒤 엄마,아빠를 새로 보게 되고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동문으로서의 자부심이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대한민국 동문 역사상 최초로 시도한 '동문 아카라카'였습니다. 학창 시절 연고전 응원전은 고작 한두 번 참여하면 끝나는 경험이었지만, 동문 아카라카는 졸업 후 평생 연세인으로서 다시 학교를 찾아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보통 50세가 넘어 25주년, 50주년 재상봉 행사로 학교를 찾던 문턱을 대폭 낮춰 젊은 동문들의 발길을 이끌고자 했습니다. 처음 실행하는 일이라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생 아카라카 기획단과의 유기적인 협의와 조직분과위원회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첫 회부터 노천극장이 완매되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부터 정문까지 길게 줄을 선 동문들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내려 긴급히 파란색 우비 1만 여장을 공수해 나누어 드렸는데, 밤이 되어 조명이 켜지자 노천극장이 온통 연세의 파란빛으로 물드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연고전 마지막 경기에서 진행한 '선배가 쏜다'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 고양 체육관을 찾았을 때, 붉은색으로 가득 찬 상대교 응원석과 달리 우리 파란색 응원석은 절반이나 비어 있었습니다. 송도 캠퍼스 신입생들이 수업 일정 등으로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가 죽어 있는 후배 선수들의 모습을 보며 총동문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 측과 협의해 송도에서 고양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신입생들의 참여를 끌어올렸습니다. 동시에 신촌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신촌 상인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고양 경기장에 온 학생들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신촌 쿠폰을 지급하는 '선배가 쏜다'를 시작했습니다. 첫해 1억원, 지난해에는 약 2억원 규모로 확대되면서 상대교 학생들조차 부러워하며 신촌으로 건너올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송도 캠퍼스 이전과 차 없는 거리 시행 등으로 침체되었던 신촌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후배들에게는 선배들의 따뜻한 내리사랑을 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연세 설립 140주년 및 연희 세브란스 통합 총동문회 설립 65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역사의 뿌리인 제중원 스토리를 뮤지컬로 제작했습니다. 서울무악로타리클럽의 장소영 음악감독을 비롯한 훌륭한 스태프들과 순복음교회 동문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세종문화회관 2,500석 무대에서 3일간 4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대학 총동문회 차원에서 자체 역사 뮤지컬을 제작해 만여 명의 관객을 모은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제중원은 고종 황제의 명과 미국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의 50 대 50 투자로 시작되어 에비슨 선생이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온전히 우리 세브란스와 연세의 역사로 승계된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번 뮤지컬은 연세의 빛나는 정체성을 문화 콘텐츠로 명확히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라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 시작된 제32대 총동문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와 미래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문회관 재건축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내년 하반기면 현재의 동문회관을 철거하고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로부터 대지 면적 2,000평 전체를 활용해 쌍둥이 빌딩을 올리는 사업 승인을 올 상반기에 이미 완료하였으며, 현재 디자인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디자인이 확정되면 2027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약 3년 반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31년 새 동문회관에 입주하게 됩니다. 한 동은 재단 본부와 지역사회 개방 시설로, 다른 한 동은 병원 및 동문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 철거에 맞춰 총동문회가 임시로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고, 새 빌딩의 인테리어와 공간 설계에 동문들의 요구가 완벽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재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연세에 걸맞은 '글로벌 총동문회' 구축입니다. 우리 대학은 QS 세계대학평가 42위에 오르는 등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세계로 나아가는 동안 동문회가 국내 중심의 토착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언더우드국제대학 등을 거쳐간 수많은 외국인 졸업생들이 현재 총동문회 네트워크에서 소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외국인 동문들을 세계 각지의 해외 지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오는 8월 미주 동문회와 함께 '제1회 연세 글로벌 포럼'을 개최합니다. 저출생,초고령화 등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 앞에서 연세의 학자와 동문, 학생들이 모여 선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세계적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서울과 미주를 격년으로 오가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동문 네트워크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재정 확충 및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건설적 제언입니다. 대학 랭킹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외국인 교수와 학생 유치, 해외 유수 대학과의 공동 연구 등은 모두 막대한 대학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연세유업 등 재단 수익사업의 효율화는 물론,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과도한 직선제 구조로 인해 교수 사회가 정치화되고 장기적 비전보다 선심성 공약이 난발되는 현 대학 거버넌스의 한계를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이사장 및 총장 선출 구조를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으로 개혁하는 데 있어 총동문회가 지혜로운 자극제이자 챌린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회 각계각층과 세계 전역에서 활약하는 연세 동문들의 지혜를 모아, 140년 역사의 연세가 향후 100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학 거버넌스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2대 동문회는 지난 65년의 통합 총동문회 역사를 500여 페이지에 담은 백서를 발간하였으며, 역사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레가시 분과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후대를 위해 우리의 발자취를 온전히 정리하고 전달하는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연세의 역사는 도전과 봉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어져 왔습니다. 현실적인 동문회관 재건축 문제부터 미래를 향한 거버넌스 개혁까지, 제32대 총동문회가 걸어갈 길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더 자랑스러운 연세, 세계 속에 빛나는 연세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04회 주회 성금 명단 (14명+1명/119만원)

강희주, 고영섭, 김명진, 김성일, 김재학, 김종문, 박성근, 유재훈, 이두원, 이순동, 이재찬, 장갑순, 최진욱, 황성원 / 이경률

제1104회 주회 출석현황

회원수	출석수	Make-up	출석률
87	24	0	27.6%

- 집행부(2명) : 이두원, 고영섭
- 클럽관리위원회(3명) : 강희주, 김종문, 오기호
- 멤버십위원회(5명) : 김성일, 오현정, 이순동, 이영석, 장갑순
- 재단위원회(4명) : 김명진, 김재학, 유승흠, 황성원
- 봉사프로젝트위원회(8명) : 김선아, 김성훈, 김연수, 박성근, 유재훈, 이상우, 장진갑, 한주이
- 공공이미지위원회(2명) : 이재찬, 최진욱

- 게스트 (1명) : 이원섭

제1105회 저녁주회

제1105회 저녁주회가 지난 7월 28일(화) 17시30분 이두원 회장의 스폰으로 연세대학교 캠퍼스 가이드 투어로 개최되었다. 무더운 여름 저녁이었지만 참석한 회원들은 모교의 역사와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 했다. 투어는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독수리상 광장에서 시작되었다. 모교의 상징인 독수리상에 대한 소개와 함께 캠퍼스의 역사 이야기를 나눈 뒤, 연세대학교 대외협력팀의 전문 안내를 받아 첫 번째 방문지인 언더우드家 기념관으로 이동했다. 언더우드家 기념관은 연세대학교의 설립자인 원두우(Horace G. Underwood) 선교사의 후손인 원한경 박사가 거주했던 유서 깊은 저택으로, 현재는 언더우드 가문의 뜻에 따라 학교에 기증되어 기념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학예사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참석자들은 언더우드 가문이 4대에 걸쳐 한국과 연세대학교를 위해 보여준 헌신과 사랑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원한경 박사가 한국전쟁 당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해군 장교로 참전한 사실과, 선친이 최초의 영한사전을 편찬한 뜻을 이어 군사용어 사전을 편찬하는 등 한국을 위해 평생 헌신했던 이야기는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또한 가족이 한국전쟁의 비극을 겪었음에도 끝까지 한국과 연세를 사랑했던 언더우드 가문의 정신은 깊은 울림을 전했다.

이어 방문한 윤동주기념관에서는 또 다른 감동이 이어졌다. 안내자의 설명과 함께 윤동주 시인의 어린 시절부터 용정, 연희전문학교, 일본 유학 시절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과 문학 세계를 따라가며, 시대를 살아낸 한 청년의 고뇌와 순수한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3층에 재현된 윤동주 시인의 기숙사 방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모두가 시인의 삶을 가까이에서 느껴보는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다. 그의 시를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시대를 아파했던 젊은 시인의 삶은 참석한 회우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캠퍼스 투어를 마친 후에는 백양누리 머레이홀에서 만찬이 이어졌다. 이두원 회장이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과 와인을 함께 나누며 회원들은 투어의 감동을 이어갔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연세대학교 대외협력팀에서는 투어뿐 아니라 기념 선물까지 준비하여 참석자들에게 더욱 뜻깊은 추억을 선사했다.

참석한 회우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느 저녁주회보다도 깊은 감동과 배움이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모교의 역사와 오늘의 연세를 있게 한 분들의 헌신을 새롭게 이해하는 매우 뜻깊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